

제3차 아·태 지역 조정회의 결과

신 동 준

정보통신부 국제기구담당관실 사무관

1. 개요

아·태지역 조정회의는 전기통신부분에서 아·태지역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'93년 5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·태지역 전기통신발전회의(Asia-Pacific Regional Telecom Development Conference : AS-RDC)의 결정에 따라 '93년 인도 발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매년 개최되어 왔다.

제3차 회의가 작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PT(Asia Pacific Telecommunity)와 ITU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)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.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, 중국, 호주 등 17개국 대표와 ITU, APT, ABU(Asia Broadcasting Union), WB(World Bank) 등 6개 국제기구와 에릭슨 등 4개 통신사업자로부터 50여명이 참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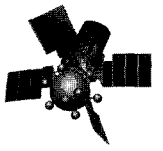
아래에 소개되는 내용들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

2. 회의내용

ITU, APT, ABU, WTO에서 아·태지역내 각 기구들의 활동과 이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고, 마지막으로 에릭슨사에서는 형식승인관련 제안을 하였다.

가. ITU 아·태지역 활동현황 및 향후계획 소개

- 북아시아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IT의 행정예의 이용, 컴퓨터에 의한 계획과 서비스요구 시스템, SPC 스위치사업을 설명하면서 ITU권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채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
- 남태평양 지역은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전기통신 훈련 및 발전, 해상무선 계획 등 각종 지역 및 국가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보다 많은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였음
- ITU의 '97년~2000년 활동계획은 '97년 2월경에



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아·태지역은 인력개발 등 9개 주제하에 39개 사업을 계획중임을 설명하였음

- 또한 이번 아·태 경제사회이사회(ESCAP: Economic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) 뉴델리 액션 플랜¹⁾에서 논의된 아·태 전기통신 표준원(ATSI : Asia-Pacifi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) 설립을 설명하면서 동 활동에 대한 APT와 ITU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설명하였음
- 아·태지역 전기통신표준원은 ESCAP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은 ITU에서 하는 것으로, '96년 10월 뉴델리에서 ESCAP 사회간접 자본개발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음

나. APT 활동현황 및 향후계획 소개

- 제7차 총회에서 결정된 APT 목적달성을 위한 일반정책 및 수행원칙²⁾을 소개하면서 특히 표준화 관련 지역협력회의, 기술이전 사업, 인력 자원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- APT는 '97년 ITU와 관련있는 협력사업으로 망 관리훈련 워크샵, WRC '97 작업반, WTPF 작업반을 언급하면서 상호간의 협력강화 필요성 강조
- 특히 아·태지역 콜백서비스(call-back service) 관련 회의를 ITU가 주관하여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- 아래표는 APT의 '97년도 주요회의, 세미나 계획임

회 의 명	장 소	일 시	비 고
1. 지역표준화회의	도 쿄	2. 18~20	
2. 아·태 전기통신개발 고위급 세미나	상 해	5. 7~10	
3. 소지역 실무회의 : 남아시아지역 동남아시아지역	파키스탄 라오스	5월 -	
4. AII 고위급 회의	?	6월	AII 2차 회의 권고
5. a) WRC '97 전문가회의 b) WRC '97 지역회의	태 국 태 국	4월 7/8월	
6. 제17차 연구반회의	?	8월	
7. 제21차 관리위원회	?	11월	

- 1) '96년 10월 뉴델리 ESCAP 사회간접자본개발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액션플랜중 전기통신관련 내용으로 아·태전기통신 표준원을 비롯하여 아·태전기통신에 관한 그린페이퍼 준비, 주파수 관리 관련 훈련, 재해 통신계획 및 조정 등 ITU와 APT가 서로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과제가 있음
- 2) 역내의 회원국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전기통신기술개발 및 역내의 회원국간에 전기통신 관련정보 및 전문가의 교류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APT는 향후 '97년에서 '99년까지 수행원칙으로는 첫째, 자유화, APII, 주파수 조정, 고위급 회담 추진등 정책문제, 둘째, 망의 고도화, 표준제정, 기술이전, R&D등 기술발전, 셋째, 기반설비 확충, 낙후지역 통신개발, 인력개발등 전기통신 확충, 넷째, 지역간/지역내 다른기구와의 협력증진, 마지막으로 APT 사무국과 회원국간 관계강화에 두기로 하고 이를 제7차 총회에서 결정하였음

다. ABU 활동현황 및 향후계획 소개

- 방송기반 발전 계획, 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 지침 등 각종 매뉴얼, PC사용자들에 친숙한 FM/TV 커버계획 S/W의 개발, 방송관련 새로운 기술에 관한 지역세미나 등 활동 소개
- 방송기술, 주파수 배정의 조화, WRC 준비등 부문에서의 APT, ITU와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- ABU는 각 정부의 방송관련 정책결정기관간의 모임이 아님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

라. WTO 활동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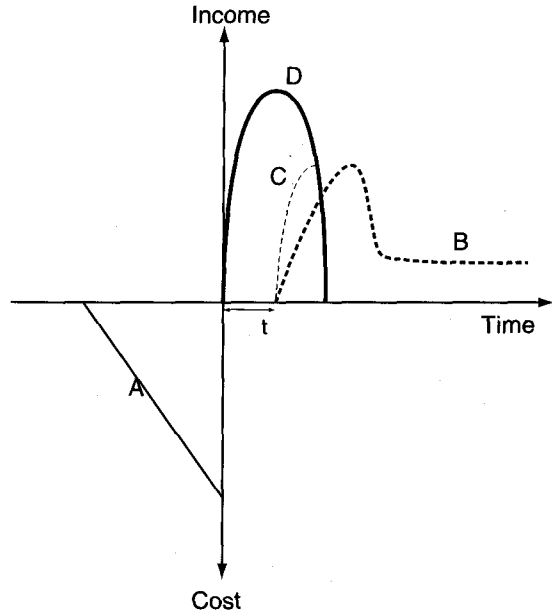
- 세계은행에서는 WTO를 대신하여 WTO-/GATS와 통신의 주제하에 기본 및 부가서비스에 관한 GATS의 원칙, 협정사항, 일반의무, GATS 통신부속서, GATS 스케줄, GBT Reference Paper 등을 설명하면서 WTO 협상참여 필요성을 각국에 설명하였음

마. 에릭슨 제안

- 에릭슨사는 정보통신분야의 빠른 기술개발 순환주기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보다 단순화되고 절차상 간단한 형식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호인정협정(MRA: Mutual Recognition Agreement)을 추진, 공인된 실험자료와 공급자 인증선언(SDoC: Supplier's Declaration of Conformity)의 인정을 주장하였다. 계속적으로 각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형식승인과 관련한 요건, 실험절차에 있어 서로

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.

- 위 논리의 근거를 간단히 그래프로 설명하면



- A : 총 개발비용
- t : 형식승인 소요시간, 이 소요시간이 0이면 이상적임
- B : 전통적 소득곡선, 형식승인 이후 판매시
- C : 미래환경하에서의 형식승인 후 소득곡선
- D : 형식승인 지체가 없을시 가능 소득곡선

3. 평 가

아·태지역 각종 전기통신기구들간의 의견교환은 이 지역 전기통신 인프라의 효율적인 계획과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동지역의 전반적 통신현황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다. 